

인류 건축은 어디까지 진보하는가

인류의 역사를 긴 안목으로 조망해보자. 문명 발전의 수많은 변곡점 가운데 기원전 8000년경의 신석기 개막과 18세기의 산업혁명은 가장 도드라진 분수령으로 보인다. 건축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간석기 사용의 농경과 목축에 근거했던 신석기 정착문화는 유목적 가설 구조물을 영구적 건축물로 전환시켰으며, 그러한 건축은 마을과 도시의 조직마저도 가능케 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이로부터 청동기의 문자발명과 고대문명이 뒤따랐고, 이후의 서양세계에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로마의 문화가 건축의 ‘고전(古典)’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며 더욱 꿈틀대던 문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 촉발시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로써 도시의 팽창과 사회시스템의 혁신이 가속화됐던 것이다. 독일 바로크 건축의 걸작인 피어첸하일리겐 성당(1743~72)이 완공될 즈음 버밍엄과 맨체스터의 공장 굴뚝은 이미 시커먼 연기를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양식주의 건축의 종식과 기계시대의 도래를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20세기의 현대 건축은 바로 이러한 기계시대의 토대 위에 형

성됐다. 이 시대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건축술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전의 두꺼운 벽체는 점점 더 얇아지거나 아예 사라지고, 아주 가느다란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기둥이 모든 구조를 지지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벽면은 커다란 유리창으로 대체되며 이전엔 경험치 못했던 밝고 투명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기계미학’은 기계시대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인데,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에는 건축에 기계유를 도입한 바 있고, 1960년대 영국의 아키그램 그룹은 건축을 아예 기계로 치환하기도 했다.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선언했던 코르뷔지에(1923)는 파르테논과 자동차를 견주며 새 시대에 맞는 20세기의 새로운 고전의 창안을 암시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과 팝문화의 발흥을 배경으로 작업한 아키그램의 젊은이들은 ‘플러그인시티’(Plug-in City, 1964)나 ‘워킹시티’(Walking City, 1964)와 같은 상상력 총만한 스케치를 선보이며 공상과학적 판타지를 꿈꿨다. 지금 봐도 짜릿한 ‘걸어다니는 도시’는 더 이상 ‘기계 같은’ 건축이 아니라 ‘기계’ 그 자체다. 50년이 지난 현재



로서도 실현성이 의문시되지만 그 낙천성은 파리 폰비두센터(1972~77) 이래의 하이테크 건축으로 결실을 본다.

작금 21세기 초의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도 건축문화에 또 다른 양상을 선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 모태가 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 동네에서 영향력을 떨친 건 이미 오래 이야기 아닌가. 필요는 발명을 낳고 발명은 새로운 필요를 끌어냈음이 역사를 통해 본 사실이다. 그런데 혹시, 이 진보라는 신화에 임계점이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그 맞바람을 따라 밀려온 지 두 세기 쯤 되다보니,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처럼 눈과 입을 동그랗게 열고 왠지 모를 두려움에 섬뜩할 때가 있다.*** 김현섭

공과대 교수·건축학과

